

CANKS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15.06.26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2014년 6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2일간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이하 중앙아 한교협) 창립총회가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 인문대에서 개최되어 백태현 교수를 회장, 장호종 교수를 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관련기사 p.2)

국가별 주요 소식

키르기스스탄 (관련기사 pp.3-5)	우즈베키스탄 (관련기사 pp.5-6)	투르크메니스탄 (관련기사 p.7)	타지키스탄 (관련기사 pp.8-9)	카자흐스탄 (관련기사 pp.10-12)
제 12 회 한국어 퀴즈 대회, 제 13 회 한국어 말하기대회,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교실, 김창규 대사 초청강연 외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2015 타슈켄트 한국문화축제	제 6 회 한국어말하기 대회, 투르크멘어-한국어 사전 발간, 한국어학과 송년회, 한-투르크멘 정상회담 통역 봉사 외	학과 10주년 기념 행사 I Love Korea, 제 9 회 한국어 말하기대회, 제 5 회 한국어 백일장, 한국의 날 행사	KF-KB 한국어 말하기 대회, 2015 한국학올림피아드, ISKAL 제 5 회 국제학술대회, 한글날 기념 한국학포럼 외

* 이 뉴스레터는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kaznks.kz>)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중앙아시아 인명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UIR&WL
Tole bi 84, Almaty, Kazakhstan
Homepage: <http://kaznks.kz>
E-mail: cks@ablaikhan.kz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2014년 6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2일간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이하 중앙아 한교협) 창립총회가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 인문대에서 개최되었다.

1일차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비슈케크 인문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가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의 미래: 한국학 교육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학술대회는 마시라포프 탈라스베크 학장(비슈케크 인문대 동양학 및 국제관계학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희길 소장(한국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 사무소)과 유병석 참사관(주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환영사와 축사에 이어 진행된 발표에서는 우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5개국 14개 대학 및 교육기관의 한국학(한국어 교육 포함) 현황이 소개되었다. 발표와 토론에서는 한국어 수강생이 증가하는 데 반하여 교수의 낮은 급여 수준, 교재 및 교육기자재의 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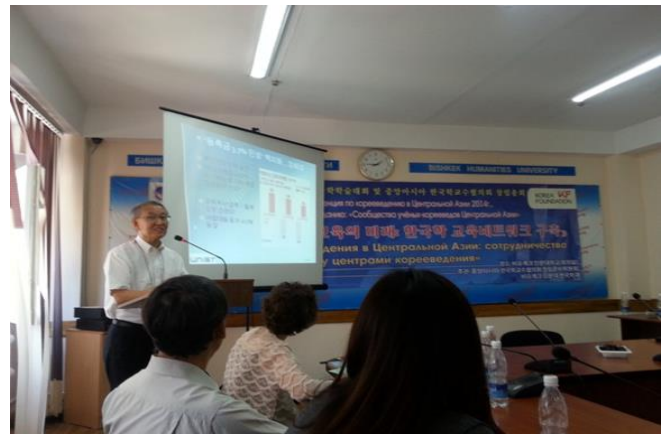
좌장을 맡은 백태현 교수(비슈케크 인문대)는 “최근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 정치경제적 요충지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이 미래지향적인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중앙아시아 한국학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한국학 교육네트워크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장호중 교수(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도 “중앙아시아 한국학은 동기와 목적, 주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연구 체계의 혁신이 수반되지 않아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이 지역 한국어교육의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술적인 교류 협력에 취약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질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를 통한 표준교재의 개발을 제시했다.

2일차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 20개 대학 및 교육기관의 한국학 관계자 40명이 참여하여 중앙아 한교협 창립총회가 진행되었다.

중앙아 한교협은 2015년 총회 및 학술대회를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서 개최할 것을 결정하고,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와 공동으로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과 “CIS 대학생 한국학논문집”을 발간하고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를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밖에도 2014-2015년 사업으로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각국의 한국학 행사를 연계하며 한국학 교수연수를 추진할 것을 기획하였다.

중앙아시아 한국학 기관들의 교류 및 교수들의 협력을 통해 한국학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중앙아 한교협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키르기스스탄

2015 학생물포럼 참가

2015년 4월 09일(목)부터 13일(월)까지 진행된 2015 학생물포럼에 키르기스-한국대학의 아셀라, 디안나(이상 1학년), 세짐(2학년) 3명이 지재천 교수의 인솔 하에 키르기스스탄을 대표하여 한국을 다녀왔다.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한국인 학생 60명, 외국인 학생 60명, 스태프 및 자원봉사자 40명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다. 각 국에서 참석한 학생들은 각국의 물환경 사례를 공유하고, 그룹별 토의를 통해 환경관련 실천방안 고민하는 시간과 각국의 전통 문화공연을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기간 중에 만들어 놓은 ‘키르기스스탄 부스’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본교 학생 3명이 펼친 전통문화 공연은 이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의 큰 갈채를 받았고, 언론의 집중을 받았다.



제 12 회 대학생 한국어 퀴즈대회

2015년 5월 16일(토) 비슈케크 인문대 대강당에서 “키르기스스탄 대학생 한국어 퀴즈대회”가 개최되었다.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는 본 퀴즈대회는 키르기스스탄 한국어(학)교수협의회(회장 김창석)와 비슈케크 한국교육원(원장 이용훈)이 주최하고,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학과(학과장 백태현)가 주관하였다. 본 퀴즈대회에는 키르기스 국립대, 비슈케크 인문대, 아라바예바대, 언어문화대, 경제경영대, 슬라비안대, 법률아카데미, 오슈공과대, 건축대, 키르기스-한국대 등에서 2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특히 남부에 위치한 오슈에서도 1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다.

한국학의 저변확대와 한국어 학습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본 대회는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어 및 한국학 실력을 향상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본 퀴즈대회는 전공 1, 2학년 학생과 비전공 학생들이 참가하는 초급 부문과 전공 3~4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고급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초급 부문 대상은 김 갈리나(비슈케크 인문대), 고급 부문 대상은 메이마랄리에바 아이잔(비슈케크 인문대)이 차지하였다.



제 13 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2014년 11월 29일(토) 아라바예바대에서 ‘제 13 회 키르기스스탄 전국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대회’가 개최되었다.

키르기스스탄 한국어(학)과 교수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비슈케크 한국교육원, 키르기스 한인경제인협회, 아시아협력기구, KCA 항공, 한사협 등이 후원하였고, 키르기스 국립대, 비슈케크 인문대 등 7개 대학에서 24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대상은 자리나(아라바예바대), 라드밀(법률대)이 차지하였다.



키르기스스탄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교실

키르기스-한국대학(KKC)의 미나라 세리쿨로바 교수와 백태현 교수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매월 2~3회 키르기스-한국대학 학생들과 함께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소재 총 7개교의 쉬콜라(초중고교)를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교실’을 개최하였다.

2014년도에 진행한 ‘찾아가는 한국 경제, 문화 교실’은 그동안 66번 쉬콜라(9월 10일), 3번 쉬콜라(9월 30일), 49번 쉬콜라(10월 29일), 28번 쉬콜라(11월 11일), 13번 쉬콜라(10월 13일), 48번 쉬콜라(12월 8일), 8번 쉬콜라(12월 11일)에서 총 7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행사에 참가한 전체 쉬콜라 학생은 약 2,100여 명에 이른다.

한편, 본 행사에서는 백태현 교수(비슈케크 인문대)가 특강을 통해 한국경제의 발전상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어판 DVD ‘놀라운 한민족’ 및 ‘한국-사람세상’ 등 2개의 영상물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상,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대회 유치, 한글의 우수성, 한류 드라마, 한식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자연환경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그 외 키르기스-한국대학 재학생들이 본 행사에 대거 참석하여 K-POP 부르기, 한국 전통춤, 태권도 시범, 사물놀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하고, 참가한 현지 학생들에게 김밥 등 한식을 제공하여 본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제고시킨 바 있다.



김창규 대사, 비슈케크 인문대 강연

김창규 주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는 2014년 10월 21일 (화) ‘키르기스스탄 아탐바예프 대통령 방한 결과 및 양국 관계 현황’ 이라는 주제로 비슈케크 인문대에서 강연을 하였다.

먼저 김 대사는 아탐바예프 대통령 방한(2013.11.18.-20)의 주요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첫째, 양국 정상은 양국이 문화적 뿌리를 함께 하는 친척 민족이라는 데 이해를 같이 하였다. 둘째, 양국 정상은 양국 정부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전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였으며, 특히 농업, 광업, 에너지, 투자, 영사,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셋째, <한-키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한-키 무상원조 기본 협정> 및 <한-키 에너지 관련 부서간 협력 협정>에 대한 서명이 있었다. 그 외 국립현충원 헌화, 정상회담, 정상만찬, 협정 서명, 국회방문, 국민권익위 위원장, 수출입은행장과 KOICA 이사장 접견, 경제 4단체장 만찬, 한-키 비즈니스 포럼,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국기원 방문 등 주요 일정도 소개 하였다.

이어 김 대사는 한-키 양국 관계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였다. 특히 한국대사관의 5개 중점 경제 지원분야를 소개하며, 양국의 경제 협력을 가시화함으로써 키르기스스탄의 산업 발전을 돕고 양국간 실질 분야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키르기스스탄 단신

- 2015년 4월 11일(토) 비슈케크 소재 우센바예바 운동장에서 ‘키르기스스탄 한국어(학)과 연합체육대회’가 열렸다. 매년 개최되는 본 체육대회는 키르기스스탄 한국어(학)교수협의회가 주최하고, 법률대와 키르기스-한국대학이 주관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본 행사는 키르기스스탄 소재 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부전공 및 제 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체육행사를 통해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다지는 또 다른 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올해도 키르기스 국립대, 비슈케크 인문대, 아라바예바대, 언어문화대, 법률대, 글라비안스키대, 키르기스-한국대학 등 180여 명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참여하였다.
- 2015년 5월 25일(토) 비슈케크 인문대 대강당에서 동양학 및 국제관계학부가 주최하는 언어축제가 열렸다. 매년 봄에 개최되는 이 언어축제는 교내 유명 축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동양학 및 국제관계학부 내에는 한국학과, 일본학과, 터키학과, 아랍학과, 페르시아학과와 지원학과로서 국제관계학과, 역사학과, 영어과가 편제되어 있다. 본 학부는 구소련 해체 이후 동양학 및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설립하였다.
- 2015년 4월 25일(토)에 ‘로자 오텐바예바 재단’이 주최하는 교육박람회가 키르기스스탄 외무부 앞 광장에서 열렸다. 키르기스-한국대학은 한국 관련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2013년 1회 박람회부터 계속 참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15년 5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세계교육포럼(WEF)”에 참가하는 로자 오텐바예바 전 대통령이 키르기스-한국대학 부스를 방문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제 6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이 지난 2014년 11월 20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개최되었다.

중앙아시아 각국의 대학생 7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중앙아시아 학생들을 격려했다.

‘성균한글백일장’은 2007년 6월 16일 중국 북경에서 1회 대회가 개최된 이래 몽골, 중앙아시아 등지에서도 열리는 큰 규모의 백일장으로서, 참가학생들은 중앙아시아 4개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 살고 있는 한국어학과전공자들로서 주어진 글제 ‘약속’을 놓고 2시간 동안 글솜씨를 뽐내게 된다. 대회 수상자(금, 은, 동상)에게는 성균관대 대학원으로 유학을 올 경우 2년 동안 등록금이 전액 면제되는 등 많은 특전이 주어진다.

심사위원들은 총평을 통해 참가자들이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글솜씨와 반짝이는 창의력으로 훌륭한 작품성을 가진 재미있는 글들을 썼으며 한국인도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표현들이 놀라웠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중앙아시아에서 일고 있는 한류열풍 속에서, 앞으로도 백일장을 통해 한국과 한국어를 깊게 이해할 뿐 아니라 한국에 유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우즈베키스탄

2015 타슈켄트 한국문화축제

매년 봄, 가을 2회씩 개최되고 있는 세종학당의 한국문화축제인 ‘K-POP 경연 대회’가 올해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함께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대강당에서 2015년 5월 29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곳곳에서 K-POP에 맞춰 목을 풀거나 두 손에 꼭 쥐 종이를 보며 큰소리로 내용을 읽는 등 경연대회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진행된 행사의 첫 순서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는 총 9명의 참가자들이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평소 꿈꾸고 있는 자신들의 꿈에 대해 발표했다. 어릴 적 병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난 언니의 몫까지 최선을 다해 한국-우즈베크 문화센터를 열고 싶다는 주마예바 카몰라에서부터 각국의 음식을 다양하게 맛 볼 수 있는 식당을 열고 싶다는 유누소바 지요다까지 모든 참가자들은 훌륭한 한국어 발음과 현실적으로 공감되는 내용들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다. 역시나, 수준 높기로 정평이 나있는 세종학당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장 안나는 운동선수로서의 꿈을 부상으로 인해 포기한 후 만난 한국어를 통해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며 본인과 같이 꿈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살고 싶다는 내용으로 방청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 대상을 차지한 참가번호 8번 한 빅토리아는 노벨 평화상 최연소 수상자인 파키스탄의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예를 들며 그가 겪은 불행들이 다른 이들에게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NGO 단체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평소 언어 공부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부진 어투와 정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일찌감치 대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K-POP 경연 대회’에는 총 8팀이 참가했다. 바자로바 나탈리아의 ‘차가운 이별’을 시작으로 야쿠보바 레마라의 ‘푸른 이별’까지 뛰어난 노래 실력과 참가자들의 끼는 그야말로 대단했다.

이날 금상을 수상한 김 엘레나는 에일리의 ‘보여줄게’를 위해 소품으로 준비한 안경을 벗어 던지는 과정에서 너무 힘차게 던져 깨어지기도 해 그의 열정에 모두들 큰 박수와 환호로 답했다. 대상을 수상한 야쿠보바 레마라는 무대 등장에서부터 밴드와 함께 베트남 농부 퍼포먼스를 선보여 대상 수상자다운 남다른 무대 장악력을 보여주었다. 밴드 연주와 함께 어우러진 수준급 바이올린 연주 실력으로 시작부터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나름 프로다운 면모도 엿볼 수 있었던 대상 수상자다운 무대였다.

“2015 타슈켄트 세종학당 한국 문화 축제 - 한국어 말하기 대회 및 K-POP 경연 대회”는 세종학당 허선행 학당장의 인사말처럼 “오늘의 이 자리가 경쟁하는 자리가 아닌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처럼 한국이라는 하나의 공통분모를 통해 한류라는 하나의 주제로 모두가 즐겁고 행복했던 뜻깊은 자리였다.



투르크메니스탄

- 제 6 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 2015년 5월 2일 투르크메니스탄 국립아자디세계언어대 총장과 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 대사 및 지상사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6 회 한국어말하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예선을 거쳐 선발된 10 명의 학생들(초급 5 명, 중급 5 명)은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비교”라는 주제로 각자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사물놀이와 여러 K-POP 가수들의 노래와 춤이 곁들여진 연극을 보여주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투르크메어-한국어 사전> 발간 - 투르크메니스탄 국립아자디세계언어대는 지난 1년 10 개월간 4 명의 학생들과 함께 작업해온 <투-한 사전>을 양국정상회담의 기간에 맞추어 발간하였다. 이 사전에는 약 9,000 개의 단어와 그에 따른 다양한 예문이 실려있어 한국어를 공부하는 현지 학생들과 투르크메어를 배우려는 한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어학과 송년회 - 2014년 12월 27일 한국어과 학생들이 대형강의실에 모여 송년회를 가졌다. 1 학년 신입생들과 졸업을 앞둔 5 학년 학생들은 각각 공연을 선보였고 다양한 레크레이션 게임과 선물 교환식, 다과회 등의 순서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14년 10 대 뉴스를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한 해 동안 한국어과에 있었던 주요 행사들을 돌아보며 함께 한 해를 회고하고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다.
- 정부초청대학원생장학생(KGSP) 2 명 합격 - 아이비비 (2013년 졸업, 어학)와 마이사피젤 (2015년 졸업 예정, 문학), 두 명의 한국어과 학생이 서울대 대학원 과정에 합격했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한국에서 공부할 예정이다.
- 제 17 회 인천 아시안게임 자원봉사 - 2014년 9월 19일부터 시작된 제 17 회 인천 아시안게임에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한국어학과 2, 3 학년 학생 16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이는 2017년 아시가바트에서 열리는 아시아 실내무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과정이었다. 덕분에 거의 한달 가까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학생들 모두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았고 한국어 실력 향상은 물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다.
- 한-투 정상회담 통역봉사 - 2014년 6월 20일과 21일 양일간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여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이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국립아자디세계언어대 한국어학과 학생 10 여명(한국어능력시험 3 급 이상)이 수행 기자단을 위해 통역 봉사자로 참여했다. 한국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이 곳 현실에서 학생들은 한국인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제 5 회 한국어 말하기대회 - 2014년 4월 26일 본교 총장과 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 및 지상사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5 회 한국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예선을 거쳐 선발된 10 명의 학생들(초급 5 명, 중급 5 명)은 자유 주제로 각자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발표와 더불어 태권도 시범과 여러 K-POP 가수들의 노래와 춤이 곁들여진 현지 결혼식 풍경을 연극으로 보여주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한국 대학원 과정 첫 유학생 배출 - 아타예바 마야 (2014년 7월 졸업)가 투르크메니스탄 국립아자디세계언어대 한국어과 졸업생으로서 처음으로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정부초청대학원장학생에 선발되어 9월 서울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타지키스탄

학과 10주년 기념 I Love Korea

타지크 국립외대 한국어학과는 2004년 개설된 이래 올해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어학과는 타지키스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양국 간 가교의 역할을 해오며, 한국에 관심이 있고 배움의 뜻이 있는 학생들에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왔다. 그리고 학과 수업 커리큘럼 내 기본적인 어학 수업 외에도 많은 문화체험수업들과 한국 유학의 기회를 주는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열고 운영해왔다.

2014. 12.18~19(목, 금) 이틀 동안 열린 이번 “I Love Korea 잔치 한마당” 행사는 현지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문화를 체험해보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첫날(18일)에는 오후 1:30부터 5개의 부스에서 각각 한국전통놀이, 국기 만들기, 전통문양-매듭만들기, 페이스페인팅, 한복체험 포토존이 운영되었다. 본교 학생들을 비롯한 연인원 약 1,000명의 사람들은 원하는 부스에 들어가서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그리고 오후 3:30부터는 타지키스탄에서는 최초로 타지크어 자막을 넣은 한국 영화(미녀는 괴로워) 상영제가 열렸다. 현지 한국어학습자들을 위해 한국어 자막을 넣은 버전도 제작되었다. 그리고 어학당 교재로 사용되는 살아있는 한국어 (1-4권) 오디오북과 단어집이 타지크어와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둘째 날(19일)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더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세종대왕 치하 여러 계층의 조선민중들을 모티브로 한 한복패션쇼로 막을 올린 무대는 곧바로 사물놀이, 시 낭송, K-pop, 태권도, 부채춤 공연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지키스탄 최초로 한국전통결혼식이 선보였다. 결혼식에는 연정구 주타지키스탄 한국대사, 본교 총장 등 귀빈들이 폐백에 직접 참가하여 관중들의 이목을 끌며 행사의 흥을 돋워 주었다. 마지막 무대는 참가자 모두가 나와 ‘아리랑’을 제창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제 9 회 한국어 말하기대회

2014년 6월 7일(토) 제 9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주타지키스탄 한국대사관 주관, 두산베 1 세종학당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100명의 예선을 거쳐 26명이 본선에 참석하여 수준 높은 한국어를 뽐냈다.

이번 행사는 2013년 12월 개설된 타지키스탄 국립도서관 한국관에서 최초로 진행된 행사라는 데 또다른 의미를 가졌다. 행사에는 타지크 국립도서관장, 타지크 국립외대 동양학부장, 한인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교민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한국어에 관심 있는 참가자들은 기초반, 중급반, 우수반으로 나뉘어 진행하였고, 한국어과 학생 외에도 세종학당 수강생, 고려인 등이 참가하였으며, 중국어과, 영어과 학생과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약 150여명의 관람객이 참석하였다.



타지키스탄

제 5 회 한국어 백일장

2014년 10월 11일(토) 타지크 국립외대 소강당에서 한글날을 기념하여, 계명대가 주최하고 두산베 1 세종학당이 주관한 ‘제 568 돌 한글날 기념 제 5 회 타지키스탄 계명대 한국어 백일장 및 예쁜 글씨 쓰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주타지키스탄 한국대사관, 한인회 및 많은 단체들이 후원해 주었고, 본교 총장과 타지키스탄 한국학교수협의회에서도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

백일장은 미리 내준 3 가지 주제를 공부한 후, 대회 당일 제비를 뽑아 주제(중급: 내가 좋아하는 한국어, 고급: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 나의 실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예쁜 글씨 쓰기’는 한국어에 관한 예문(설날)에 대한 질문 15 개 문항 중 8 문항에 대한 답을 기재한 후, 제시된 예문을 바르고 예쁘게 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백일장 부문’ 1 등 수상자는 계명대학교에서 1 년 동안의 어학연수와 기숙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으며, 2, 3 등 학생에게도 각각 6 개월 동안 어학연수 및 기숙사를 제공받는다. ‘예쁜 글씨 쓰기 대회 부문’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부상이 수여되었다.

이 행사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한국의 날 행사

2014년 7월 6일 타지크 국립도서관에서 두산베 2 세종학당과 타지크 국립외대 한국어과 주최로 ‘한국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특별히 계명대에서 온 대학생 봉사단원들과 타지키스탄에서 의료 봉사 일정을 앞두고 온 계명동산의료원 의료진들이 함께 동참하였다. 2013년 12월 신설된 한국관(두산베 2 세종학당)을 비롯해 도서관 2층 전체 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계명대와 타지크 국립외대 한국어학과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오후 2시부터 한국영화관람, 각종민속놀이체험, 국기 만들기 등 다양한 코너가 개설되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재미있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오후 4시에는 의료진들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특별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오후 7시에는 도서관 9층 홀에서 한복 패션쇼가 열렸다. 다양한 한복의 모습을 선보인 본 행사는 많은 관중들의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홀은 자리가 부족하여 일어서서 지켜보는 관중으로 가득 찼다. 이번 행사에는 타지키스탄의 외교부, 각국 대사 등 내빈과 함께 많은 고려인 관객들이 방문하였다. 한 고려인 관객은 타지키스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한복의 아름다움과 한국을 알릴 수 있어서 자랑스러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행사에서는 패션쇼 외에도 계명대 학생들의 사물놀이 공연, K-POP, 태권도 시범, 대학생-의료진 합창 무대가 이어졌다.



카자흐스탄

KF-KB 한국어 말하기대회

2015년 5월 23일(토)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KF-KB 한국어 말하기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KB 국민은행이 후원하여 개발한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한국어>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중 우수 한국어 학습자를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와 한국어 학습의욕 증진을 위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유적과 금융 및 산업 현장을 견학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중 7박 8일에 걸쳐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카자흐스탄에서 국가별로 4명씩 총 20명이 참가하여 한국에서 연수가 진행된다.

1차로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대학별 3명의 수상자를 선발하고 KF의 2차 심사를 거쳐 대학별 최종 연수자 1명을 선정하게 된다. 본교에서는 바이베코바 악토르긴(동양학과 3학년), 돌라예바 알루아, 누르마카노바 아라이(이상 한국학과 3학년)가 1, 2, 3등을 차지하였다.



ISKAL 제 5 회 국제학술대회

2014년 8월 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국제한국어응용언어학회 제 5회 국제학술대회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개최되었다.

국제한국어응용언어학회(ISKAL)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8개국 60여 명의 언어학자 및 한국학자가 참여하였다.

첫째 날에는 신기현 회장(ISKAL, 뉴사우스웨일스대)의 개회사와 쿠난바예바 총장(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6개 세션에서 발표가 진행되었다. “한자 차자 표기에 대한 고찰”(김경호, 메지로대), “카자흐스탄 한국어교육의 약사와 실태”(이현경,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 분야의 교육제도와 학습환경 활성화 방안”(김 아나스타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어 동사 활용에 관한 고찰”(이길원, 동아대), “한국어의 담화와 어휘에 대하여”(김남길, 남캘리포니아대) 등 2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둘째 날에 계속된 학술대회는 4개 세션에서 “한국의 급속활자에 대하여”(박 넬리,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과제”(장호중, 한국국제교류재단 파견교수),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예절”(이 브로니슬라프, 타슈켄트 니자미사범대), “재외동포의 방언과 사회 유형론”(반즈-새들러, 런던대 SOAS), “한국문학의 이주 모티프”(김준현, 고려대) 등 1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해외 한국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학술대회는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이틀 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카자흐스탄

한글날 기념 한국학포럼

2014년 10월 19일(목)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567돌 한글날과 한국학센터 개원 2주년을 기념하여 한국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행사는 우시케노프 학장(동양학부)과 김 아나스타샤 학과장(한국학과)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박 넬리 소장(한국학센터)의 특강이 이어졌다.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은 중앙아시아 각국의 한국학 현황을 소개하고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발전 모델로서 본교 한국학 사업 방향을 제시하여 청중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행사 말미에는 정지호 법인장(신한은행 카자흐스탄법인)을 대신하여 이교종 차장이 본교 학생 6명에게 “신한은행 장학금”을 수여하였고, 김 아나스타샤 학과장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우수자를 표창하였다.

한글날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포럼을 통해 본교의 한국학이 빠르게 성장하여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를 마친 후 장소를 옮겨 한국-중앙아시아 오픈포럼 2014년 1차 발표회를 가졌다. 장호중 교수(한국국제교류재단 파견교수)는 “한-중앙아 역사적 관계 규명의 한계: 언어학적 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국에 잘못 소개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고대사 관련 정보들을 어원론의 입장에서 비판하였다.

한편, “한국-중앙아시아 오픈포럼”은 이석윤 참사관(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알마티분관), 김 올레크 대표(CIS 그룹) 등의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본교 한국학센터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월례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14일(금)에 개최된 2차 발표회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통과의례 비교”(보란타예바 파리자, 본교), “한국인과 카자흐인의 사고방식”(방정식, 본교)가 발표되었다.

KF 한국전공대학원생펠로십

2015년 1월 30일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알마티분관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2014-2015 학년도 한국전공대학원생펠로십”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지난 2009년부터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와 협약을 맺고 한국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2014년에 연장된 새 협약에 따라 박사(1명) 연 10,000달러, 석사(3명) 연 4,000달러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본교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에는 스비리도바 발렌티나, 사케노바 아이누르, 황인나(이상 본교 석사과정)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손치근 총영사로부터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 받았다.



카자흐스탄

2015 한국학올림피아드

2015 한국학올림피아드가 2월 27일(금)부터 28일(토)까지 이틀에 걸쳐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개최되었다. 어문학부문(Korean Philology)과 한국어부문(Korean Language)으로 나누어 알마티, 아스타나, 악토베, 탈디쿠르간, 타라즈, 비슈케크 등 8개 도시 16개 대학에서 50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었다.

이번 행사는 카자흐스탄 교육부가 주관하는 외국어올림피아드(Kazakhstan Republican Student Olympiad in Foreign Languages)의 일환으로 열렸다. 한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 9개 언어에서 어문학, 통번역, 제2외국어 3개 영역 25개 부문에 걸쳐 40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한 본 대회는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학생 언어경시대회이다.

전체 개회식(2월 27일, 제1관 대강당)에서 한국학부문은 김종일 원장(알마티 한국교육원)이 축사를 하였다. 전체 개회식을 마치고 언어별로 대회가 진행되어 어문학부문과 한국어부문의 문법, 어휘론, 문학, 문화 등의 테스트와 작문이 실시되었다. 오후에는 다른 도시에서 참가한 학생들을 위해 알마티 견학이 진행되었다. 길게는 30시간을 꼬박 기차를 타고 온 참가자들은 알마티의 명소 메테우를 구경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었다.

둘째 날, 어문학부문은 이석윤(한국대사관 알마티분관 참사관), 문상웅(비슈케크 인문대), 장호중(한국국제교류재단 파견교수)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교류’를 주제로 발표한 참가자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심사하였다. 한국어부문은 김종일(알마티 한국교육원 원장), 김 올레크(법무법인 CIS Group 대표), 김정복(알마티 한국교육원), 방정식(본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참가자들의 말하기를 심사하였다. 발표를 마치고 참가 학생들과 심사위원들은 한국음식점 ‘가야’에서 맞춘 불고기, 비빔밥, 비프가스 등 도시락으로 함께 식사를 하였다.

심사 결과 어문학부문의 1위는 잔비르바예바 아이게림(본교), 한국어부문의 1위는 다우토프 바우르잔(카자흐 국립대)이 차지하였다. 1위 2명, 2위 3명에게는 LG 스마트폰, 3위 5명에게는 상금 200달러, 장려상 5명에게는 상금 100달러가 주어졌다. 상품과 상금은 알마티 한국교육원, LG 전자, 법무법인 CIS Group이 협찬하였다. 2월 28일 오후 제1관 대강당에서 언어별 시상식을 끝으로 대회를 마쳤다.

5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후원으로 여러 도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었다. 본교 한국학센터(소장 박 넬리)는 입상에 실패한 참가자들을 위해 기념품과 참가증명서를 준비했으며, 내년에는 한국의 대학원 진학이나 단기연수 등 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